

AI 브레인스톰 파트너와 함께한 창의적 도전

[정보과학대학 콘텐츠IT 오준혁]



01. 생성형 AI, 학습 파트너로 자리잡다

예전엔 단순히 정보를 검색했다면, 이제는 AI가 질문에 맞춰 설명하고 예시도 들어줘요. AI는 개념 이해부터 문제 해결까지, 창의적인 학습 도우미가 되어주고 있어요. 공부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성형AI

#학습보조

#AI와학습

#코딩개념

#AI예시설명

#개념이해

자바의 상속과 다형성, 파이썬의 고차 함수(map, reduce)... 혼자 공부할 땐 막막했죠. AI에게 설명을 부탁하면, 예시 코드와 함께 쉽게 풀어줘요. 마치 과외 선생님이 옆에 있는 느낌이에요.

02. 개념을 넘어서, AI로 심화 학습까지

AI는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로직이 필요한지도
설명해줘요.

함수들 간의 연계,
메모리 흐름,
최적화 방향까지도 설명해줘요.
단순 암기를 넘는
사고력 훈련이 가능합니다.

03. 창의력도 AI와 함께 키운다

공모전 아이디어가 막힐 땐
AI와 브레인스토밍을
해봤어요.

예상치 못한 접근법을
제시해줘서 생각이 확장됐어요.
AI는 아이디어 촉진제로도
훌륭해요.



04. AI를 활용한 논리적 글쓰기

에세이 초안을 쓰고 AI에게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논리의 비약, 문장 구조 문제 등을 지적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줬죠. 수정 후엔 훨씬 설득력 있는 글이 되었어요.
AI가 학습을 빠르게 도와주는 건 분명한 장점이에요.
하지만 내 머리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죠. 학습 효과는 속도가 아닌 '깊이'에서 나옵니다.

#생성형AI

#학습보조

#AI와학습

05. AI를 '도구'로 써야 할 때 -AI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공부

AI는 '도우미', 중심은 언제나 '나'

사고력과 자기주도성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수업 후 노트를 정리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AI에게 질문합니다. 그다음, 스스로 문제를 풀고 AI로 피드백을 받는 루틴을 따릅니다. 이렇게 AI를 '도우미'로 활용하되, 학습의 중심은 언제나 '내 사고'에 둡니다.

#학습루틴

#AI보조

#자기주도학습



감사합니다.

